

데스크 시각

기현호



‘골키퍼 이세연, 풀백 김정남·김 호·박이천, 센터포워드 이희택’

1969년 10월 20일 열린 멕시코월드컵 축구 호주와의 최종 예선전에는 이름만 들어도 눈에 삼삼한, 현재의 박지성, 이영표 이상의 인기를 구가하던 당대의 내로라하는 스타들이 총출전했다. 붉은 악마보다 더 뜨거운 국민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1대1 무승부. 승률에서 뒤진 한국은 본선행 티켓을 호주에 넘겨줬고 이듬해 열린 멕시코월드컵은 한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멕시코월드컵은 세계축구사에 큰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한해 불미스러운 일 많아

초로 ‘엘로카드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설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막연한 추측과 달리 레드카드가 옐로카드보다 먼저 그라운드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구 공식기구 1호인 영국의 축구협회

가 창립되고 그 협회가 14개 조의 정리된 규칙을 공식발표한 해가 1863년이었으니까, 옐로카드는 최초 규칙 제정 이후 무려 100년이 지나 탄생한 셈이다. 선수들의 거친 몸싸움에 골머리를 앓던

영국 심판이 빨간 신호등과 파란 신호등 사이 경로의 의미를 점멸하는 노란 신호등에서 힌트를 얻어 제안했는데, 옐로카드는 갈수록 반칙이 많은 현대축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저물고 있는 2007년 한해를 돌아보는데, 정치, 사회, 문화 등 혼탁했던 우리 사회 전 분야에도 옐로카드 감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다. 뉴스 캡린더의 첫 페이지 첫줄, 1월 1일

부터 갖 결혼한 연예인 부부의 폭행과 유산사건이 터졌고 현직 교수는 고범 부장관사를 향한 석궁테러로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2월에는 여수출입국 관리소 외국인 수용시설에 불이나 보호종이던 중국인 9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그룹회장이 아들 대신 보폭 폭행을 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6월에는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으로 한국인 탑승객 13명이 모두 숨지고 신정아 씨의 가짜학위 문제가 터지면서 ‘학위, 학력위조’가 한여름

하고 있고 그나마도 없어 실업자로 전전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가 10만 채에 이르는 등 불개진 아파트가 너무 많았다. ‘이랜드 사태’ 등 많은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투쟁을 하다 해고됐고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폭로되기도 했다. 비록 달력속으로 넘어가지만 모두가 바른 위치에서 제역할을 하지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

시장의 질서도 잡아야

빚어진 우리 사회의 치부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할 일이 많다. 경제 살리기를 새 정부 국정의 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있어 규제 완화와 기업경쟁환경 개선, 신성장 동력 육성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비록 이념논쟁은 이제 끝났다 하더라도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를 외면하면 안된다. 자본주의 삶의 그라운드인, 시장의 질서를 잡는데도 주력해야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옐로카드가 난무하지 않는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을 ‘비정규직과 알바의 수렁’에서 구하고 40~50대의 미래의 삶에 확실성을 부여해주는 것, 서민과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모두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다. /경북부장 kihh@kwangju.co.kr

‘옐로카드’ 없는 새해를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위험 수위 넘은 인터넷 중독 대책 서둘러라

우리 사회의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전남세신청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가 올 10월까지 인터넷 중독 관련자를 상담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치료가 필요한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밝혀졌다. 상담건수도 1천41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보다 58.4% 급증했다.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이 인터넷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은 새삼스런 문제가 아니다. 초·중·고생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 중독을 의심할 정도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성인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인터넷 중독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중독은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을 크게 해친다. 특히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은 더욱 크다. 자기통제력이 상실되고 감

정조절이 안 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혼동하기 쉽다. 이로 인해 폭력과 살인, 자살, 모방범죄, 원조고제 등 온갖 피해를 낳게 된다. 지난 24일 영광에서는 인터넷 중독 치료를 받던 고교생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고 극히 사적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특성상 중독의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독 예방 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반사회적인 사이트의 폐쇄조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됐다. 정부는 인터넷 중독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능 복수정답 수험생 피해 최소화해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물리Ⅱ 과목 11번 문항에 대해 ‘복수 정답’을 인정하면서 그 과목이 확산되고 있다. 평가원이 뒤늦게 복수정답을 인정함에 따라 성적표가 나온 상태에서 성적을 재재검해 다시 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수능시험에서 이처럼 여처구니없는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안타깝다.

대학입시에서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등급이 바뀐 수험생들이 원서를 다시 낼 수 있도록 25일과 26일 마감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을 28일로 늦춰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이미 합격자를 발표한 수시모집도 성적을 재사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유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물리Ⅱ 과목의 복수정답 인정으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의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과학탐구 영역의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상위 등급 학

생이 많아지는 물리Ⅱ 선택자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것이다. 엄청난 혼란이 아닐 수 없다.

정강정 평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평가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국가의 공신력도 치명상을 입었다. 정시모집 일정까지 연기되는 혼란 속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육 당국은 일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평가원과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 수능 시험 문제 검토에 소홀해 실수가 발생했고 오류가 있다는 지적에 신속히 대처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이다. 수험생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능시험의 출제와 관리 등 전반적 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호킨스라는 소년은 부모를 도와 여인숙 일을 하던 중 엄청난 일을 맞닥뜨린다. 투숙객인 뱃사람 존스의 죽음과 그의 유류에서 보물섬 지도를 발견한 것. 호킨스는 의사 리브시를 찾았고, 가지를 알아본 리브시는 지주 트렐로니와 함께 배와 선원을 구해 보물을 찾아 떠난다. 배의 요리사 실버는 호탕한 성격으로 인심을 얻는다.

하지만 호킨스는 실버가 보물을 독차지하기 위해 반란을 주도하는 해적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보물섬에서 호킨스 일행과 해적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진다. 제지를 발휘한 호킨스는 해적들을 따돌리고 보물을 차지

한다. 실버는 살 길을 모색하다가 결국 보물 일부를 훔쳐 도망친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줄거리다. 어렸을 적 누구나 보물이라는 호기심에서 책을 접했고, 모두가 ‘대박’을 쫓는 ‘보물지도’가 아닌 ‘인생의 표피·희망’을 찾는 ‘보물지도’를 지녔으면 한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당시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보물지도’라는 말이 일상에서도 쓰이게 됐다. 최근에는 단순한 보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의미의 지도를 떠나 인생의 희망, 목표 지향성 등을 뜻하는 말로 승화돼 실용되어가고 있다.

옛그때 100조원 상당의 남승시대 보물을 싣고 가다 중국 광둥성 양바다에서 침몰한 무역선 ‘난하이 1호’가 인양

돼 관심을 끌었다. 이들 보물은 ‘광둥심크 로드박물관’ 안에 있는 ‘수정궁’으로 옮겨졌다. 길이 30m, 폭 10m인 난하이 1호 840여년 전 보물을 싣고 인양된 태풍을 만나 침몰한 무역선이다. 선적된 보물이 6만~8만점에

이르고, 고대 선박 기운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대도 보존상태도 양호해 매우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민간 차원의 보물찾기 소식에 간혹 들려온다. 모두가 ‘대박’을 쫓는 ‘보물지도’가 아닌 ‘인생의 표피·희망’을 찾는 ‘보물지도’를 지녔으면 한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보물지도



기고

박의섭



검게 변해버린 바다, 파도에 밀려오는 기름, 그것을 제거하는 어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던 차 지사로부터 태안으로 태안복구를 위해 ‘원정 봉사’를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흔쾌히 봉사원들과 함께 작은 힘을 보태리라 마음먹었다. 지난 18일 겨울 새벽잠을 포기하고 차가운 새벽공기를 마시며 집을 나섰다. 태안 어민들을 위해 조그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하니 ‘이 정도 쫄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6시 봉사원 100여명과 함께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만리포 해수욕장으로 떠났다.

해도 밀물이 오면 기름띠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여러 사람의 노력이 더해져 기름띠가 없어질 때까지 복구 작업을 계속한다면 점차 바다도 제 기능을 찾을 거라는 믿는다. 그런 희망을 갖고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는 힘 없이 봉사를 했다.

인간의 조그만 실수로 얼룩진 그 큰 바다가 불쌍하게 보였다. 오후 작업에 들어가면서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보였다. 우리들의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효과를 본다는 사실에 더

태안반도, 도움의 손길 더 필요하다

태안반도의 백사장 모습은 텔레비전에서 보고 들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 심각성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 하늘에 있어야 할 매기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하늘마저도 검게 변해버린 모습 같았다. 내가 서있는 태안반도의 백사장은 더 이상 백사장이 아니었고 검게 물든 모습이 처참하기까지 했다. 땅을 조금 파보니 모래는 기름덩어리와 엉겨 붙어 검은 진흙과 같은 모습이었다. 파도에 밀려온 기름찌꺼기들이 모래에 흡수되어 이 지경까지 되었고, 손끝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백사장의 모래를 파내서 버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름으로 뒤범벅된 모래를 파서 버려도 또 다시 밀려오는 오염된 바닷물 때문에 그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정말 끔찍한 악순환이었다.

우리 광주·전남 적십자 봉사자들은 검은 기름으로 얼룩진 모래와 자갈 바위 등을 수많은 다른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흡착포와 형광으로 기름띠를 걷어내고 나르는 일을 했다. 온종일 복구

육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흡착포를 나르는, 해안가에서 돌을 닦는, 배식을 돕는 자원봉사자들, 삶의 터전을 잃었어도 자히러 봉사원을 위로하는 마을 주민들을 볼 때 한국인으로써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다. 만리포 해수욕장은 직접적 피해가 있었던 곳이기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갔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외진 곳이나 바위 절벽 등은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섬 지역은 10가구 내외의 주민밖에 없기에 사실상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절실하다고 한다. 태안반도 내 모든 피해구역은 향후 10~20년 정도는 예전 모습의 바다를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청정바다가 언제쯤 원래 모습을 되찾을지 모르지만 우리 봉사원들의 작은 봉사정신 하나하나를 믿기에 오늘도 나는 작은 희망을 걸어본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발사 랑봉사회 봉사원>

교육평가원 오만한 자세가 대입 혼란 부추겨

2008학년도 수능에서 물리Ⅱ의 한 문항이 두 개의 정답시비를 벌이다 결국 인정하게 됨으로서 입시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지난 2004년에 이어 두번째다.

문제는 예대초 수능실시 직후에 의의사 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렸으나 고지식한 평가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시 한국물리학회가 정답이 두 개임을 밝혔음에도 평가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소송불사까지 거론하자 마지막에 인정하는 자세에 있다.

처음부터 출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답을 인정하겠다고 했으면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버티 때까지 버티는 평가원의 경직되고 오만한 자세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았는가.

이번 정답시비로 인해 피해와 불이익을 보는 수험생이 없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어떤 경우든 수험생의 잘못은 없으므로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우윤숙·광주시 동구 서석동

데이빗 팔머와 유권자의 변화

라마 24에 등장하는 캐릭터이다. 그는 극중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데, 주인공인 잭 바우어와 함께 엄청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낸 훌륭한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다.

데이빗 팔머는 그토록 자신이 믿었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협박당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결국 훌륭한 지도자로 추앙받기는 하지만, 국가 이익 단체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마는 비운의 인물이기도 하다.

만일 이런 데이빗 팔머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바뀔 수 있을까? 극중 데이빗 팔머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고자,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살인 혐의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것을 은폐하려 했던 부인과 이혼한다.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추적,

증거들을 이용해 그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내몰려고 하지만, ‘진실’의 힘을 이용해 자신과 참모들을 지켜나간다. 팔머가 훌륭한 지도자로 존재하는 배경에는 국민의 신뢰가 있기에, 그는 현상으로 직접 달려가길 원하고, 왼쪽 테러 상황에서조차 대피하지 않고 국민 곁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 절차와 원칙을 중요시 하지만 국민들이 처한 위기상황에는 절차를 무시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고, 모든 비난을 자신이 감수한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길 기대하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한 데이빗 팔

데이빗 팔머와 유권자의 변화

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제 아무리 지도자가 바뀌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 지역정서에 기대어 투표하는 풍토조차 바뀌지 않고, 심지어 젊은이들은 선거 당일 스키장 갈 계획부터 세우는 이 마당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든 우리의 삶이 행복해 질 수 있을까?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는 곧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해야 한다. 그가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다. 우리가 달라질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문화평론가·2005년 11월 수상자>**

은편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편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교통 표지판에 총 쏘는 사냥꾼 강력 처벌해야

승용차를 타고 지방국도를 다니다보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각종 표지판들이 일부 불치각한 사냥꾼들의 총알 세례로 훼손된 것을 볼 수 있다.

운전자의 시각을 없애주려고 급격크기에 설치된 불룩 거울에는 움푹 들어간 자리 10여 개도 넘는다. 모두 총알 자국이다. 안전 표지판도 마찬가지다. 자세히 보면 안쪽으로 총알이 눌러진 채 박혀 있다. 공기총탄과 이로 인해 생긴 흔적이다. 야간 사냥에 나서는 사냥꾼들이 빛을 발

하는 이들 사냥꾼을 영정 사격의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짐승을 보고 표적을 안 놓치고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표지판을 보고 영점을 잡는 것이다. 이런 무분별한 총질은 영점조준사격의 표지판이 된 이 불룩거울이 있는 장소는 대부분 교통량도 많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냥꾼들의 이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총질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동현·광주시 남구 덕남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광 동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처 부 2200-616	여론대처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